

보도

SPACE21 본공사 임박, 구성원 안전문제는?

안전·소음·진동·분진 방지대책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첫 계획이 나온 지 약 8년 여 만에, 모든 구성원의 숙원사업이었던 SPACE21 사업이 드디어 본 공사를 앞두고 있다. SPACE21사업은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 역시 ‘캠퍼스 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 범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범주와 불편사항들을 체크해보고, 그 예방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캠퍼스종합개발 사업과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의 건축허가가 승인(2014.12.12)됨에 따라 SPACE21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본격적인 건축작업에 앞서 ‘보차도분리공사’와 ‘건설차량 진입로공사’, ‘노천극장철거공사’를 지난 달 10일부터 시작해 이달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보차도분리공사’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구간은 ①정문부터 교시탑 구간과 ②중앙도서관부터 ‘혈떡고개’ 사이 구간 등 총 두 구역이다. 이 두 구역에는 새로운 보도가 마련된다.

국제캠 종합체육관 신축사업 이달 내 본 공사 시작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신공학관 건축사업 및 외국어대학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성원간의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미 구성원 간 논의를 마친 종합체육관의 공사가 먼저 시작됐다. 현재 공사부지 내의 수목을 이식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펜스를 가설하는 등의 사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처럼 캠퍼스 내의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각 캠퍼스에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국제캠의 경우 교내 도로 네 곳에 공사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서울캠은 새 보행자도로를 건설해 공사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할 예정이다



국제캠은 보차분리 대신 출입시간 조정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캠



국제캠

공사차량의 도로점유가 발생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캠퍼스 내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등하교 시간(08:30~09:30, 17:10~18:10)에는 양 캠퍼스 모두 공사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교 측이 마련하고 있는 이 같은 대책과 함께 안전에 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가령 보차도분리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차도 통행을 시도한다면 구성원의 안전은 확실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문제와 더불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업단은 큰 공사소음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야간, 새벽시간대 등에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협조도 필요

먼저 서울캠에서는 공사장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자동측정망 장치를 통해 소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진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사현장에서 주기적 살수처리와 더불어 방진망 설치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공사차량에 대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캠에서는 생명과학대학 건너편 방향으로 7m의 방음·방진펜스를 설치하고 학생회관 방면으로는 4m의 방음·방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사현장 출입구에는 역시 세륜장을 설치해 교내도로로 분진이 방출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 장비도 소음저감 장비 위주로 배치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설사업단 측은 아울러 구성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규모 있는 대형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불편사항이 발생 수 있을 것 이지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구성원의 너그러운 이해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